

성인 애착행동과 하나님 애착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 Kirkpatrick의 가설을 중심으로 -

이 향 숙(성결심리상담연구소 전임연구원)
전 요 섭(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커크패트릭의 두 가지 가설에 근거한 애착이론을 기독교상담과의 적응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울비의 애착이론과 확장된 성인 애착행동, 그리고 커크패트릭의 가설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애착행동을 생존본능의 행동으로,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가 의존하고 삶을 향한 힘을 얻는 기반으로 설명한 보울비의 해석을 확장하여 커크패트릭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애착행동과 동일시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성인 애착의 일치가설과 결핍된 애착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운다는 보상가설을 증명한 많은 연구들을 기초로 신자의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정 애착이 왜곡된 표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기하였다. 기독교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본능적인 행동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온전한 의존이다. 그러므로 영혼구원과 기독교인의 신앙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의해 왜곡된 하나님 애착표상을 완전한 부모표상인 하나님표상으로의 재구성은 바람직한 상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초기애착은 기독교인의 건강한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며 하나님표상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앙교육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강조한다.

주제어 : 애착, 성인 애착, 일치가설, 보상가설, 하나님 애착, 기독교상담

I. 서론

인간행동 이해에 관한 연구 중 하나인 애착이론은 영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보울비(Bowlby, 2009 : 274)는 영아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을 ‘애착’이란 용어로 정의하고 정신분석학과 동물행동학, 진화론 등을 근거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Anisworth et al., 1978 : 3-23). 하지만 이러한 애착이론의 배경은 인간 창조설을 확신하는 기독교 관점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나아가 기독교상담에 애착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과학적이고 폭넓은 애착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인간행동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애착이론을 초기 애착관계와 성인관계와의 연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또한 중년이 된 성인자녀와 노인 부모와의 관계연구에서도 애착이론이 적용되고 있다(Krause & Haverkamp, 1996 : 83-92).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격과 정신병리학 분야에까지 애착이론은 확장되었다. 특히, 반응성 애착장애와 같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장애를 비롯하여 분리 불안장애, 경계성 성격장애의 유발 원인 중 하나는 불안정 애착의 결과로 본다. 또한 알렌쇼어(Allan Sch)는 신경과학과 애착을 접목시킴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애착이론에 대한 증명을 시도하였다(Holmes, 2008 : 271-96). 미네소타 종단연구(The Minnesot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 and Children)를 비롯한 다수의 종단연구들도 애착이론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자료들을 발표하였다(정옥분 외, 2009 : 343-45, 97-98).

애착이론이 적용된 또 다른 분야는 하나님을 애착표상으로의 개념화를 시도한 것이다. 커크패트릭(Kirkpatrick, 1998 : 961-73)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애착의 네 가지 기준인 근접 지속성, 분리불안, 안전한 안식처 그리고 안전기지의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애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기 애착경험이 성인 애착으로 연결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 애착과 일치된다고 주장하는 그의 가설에 대해 몇몇 종단연구와 그란퀴비스트(Granqvist, 1998 : 350-67)에 의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 애착인물로 생각한다는 연구증거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인 애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은 상담과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그 적용을 가능케 하였다. 상담자의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은 내담자

의 이해를 돕는데 활용된다. 특히 성인의 애착경험이 회심과 불신자의 구원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커크패트릭의 연구결과는 기독교상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98 : 961-73).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적이 영혼구원과 신자의 신앙성숙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애착은 상담과정에서 특히 불신자나 회심의 경험이 없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애착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하나님을 지나치게 인격화함으로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는 신학자들의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Miner, 2007 : 112-22).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기독교상담에 애착이론의 적용을 모색하고 초기 애착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성인 애착유형과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 애착에 대해 접근한 커크패트릭의 이론을 조명하기 위해 애착이론과 아동기 애착, 아동애착유형과 성인 애착유형을 비교하여 성인 애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신자의 하나님 애착이 기독교상담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하나님 애착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인지된 하나님 표상에 대한 신자의 애착을 말한다.

II. 성인 애착행동에 대한 이해

1. 애착이론

애착은 인간환경의 진화론적 적응으로부터 시작된다. 함께 무리지어 다닐 때 안전을 보장받지만 집단에서의 분리는 곧 바로 침략자로부터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애착기능을 생성시킨다(Bowlby, 1976 : 143). 애착의 일차적 기능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다. 유아의 요구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과 근접성은 중요한 타인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유아의

다양한 애착행동들은 애착대상(attachment object)이 목표가 아니라 안정감의 상태를 목표로 하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동이다(정옥분 외, 2009 : 347). 나아가 보울비(2009 : 322-29)는 할로우(Harlow)의 원숭이 실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애착이 배고픔과 같은 일차적 욕구 충족과 관계없이 발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강조하였다. 보울비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의 애착관계의 질이나 유대과정(bonding process)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촉진하였다. 특히, 에인스워스(Ainsworth)의 ‘낮선 상황 실험’ 연구는 보울비의 추상적인 애착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애착의 질을 구체적으로 분류함으로 애착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보울비의 애착이론은 궁극적으로 내적 작동모델에 그 중심점이 있다. 그는 신체 안의 생리조절체계가 있듯이 애착행동 조절체계가 중추신경계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Bowlby, 2009 : 136-46). 그의 이러한 생각은 삐아제(Piaget)의 인지발달 표상(representation)개념에 영향을 받아 애착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켰다. 내적 작동모델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 아동 간의 수많은 경험의 적응 과정으로 형성된 내적 표상으로 아동이 성장하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 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신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적 표상의 고착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작동모델이 된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에도 반영하여 나타낸다. 반면에 불안정 애착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타인과 세상은 자신을 위협하는 위협한 대상으로 여겨 도피하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작동모델은 평생 동안 작동하는 영속적 특성 있다(Marrone, 2007 : 104). 발달초기의 내적작동모델은 융통성이 있고 쉽게 변화할 수 있으나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의식적이고 무의식적 측면들을 포함하는 관계모델에 기초하여 하나의 선호하는 애착전략으로 고정된다(Brisch, 2003 : 19). 이와 같이 생애초기에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애착특성은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일생동안 유

지되며 다음 세대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아동기 애착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에서 아동이 환경을 탐색하고 숙달하기 위해 애착 인물을 안전기지(secure base)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의 애착행동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에게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감만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애착개념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애착체계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체계는 아동을 보호하려는 적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보호적인 양육이 통합된 체계들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해 나가는 한 쌍의 체계(a dyadic system)로 기능한다(유영미, 2004 : 9-12). 이러한 사실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본능과 양육자의 보호본능은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행동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체계의 특성인 일관성과 민감성 여부는 아동의 애착행동에 개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발견된 아동 애착행동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안정(secure)형, 불안전-회피(anxious-avoidant)형, 불안전-양가적(anxious-ambivalent)형의 세 범주의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메인과 솔로몬(Main & Solomon, 1986, 121-82)이 부모가 학대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위협할 때 나타나는 와해-혼돈형(disorganized-disoriented)을 추가하여 네 범주로 확장되었다.

낯선 상황 실험에서 분류된 안전형 아동은 애착대상을 붙잡고 있거나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낯선 환경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지만 위협을 느끼게 되면 곧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행동을 한다. 반면, 불안전형 아동은 일관성이 없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애착대상에 대한 불안으로 어머니에게 집착 또는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 와해-혼돈형 아동은 애착대상과의 재회 시 당황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아동이 예측 불가능한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 행동유형이다(Marrone, 2005 : 72-73).

보울비는 후기 연구에서 아동의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생물학자 웨딩톤(Weddington)이 제안한 발달경로(developmental pathwa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발달경로모델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발달을 위한 최적의 경로이지만 반면에 안정되지 못한 환경은 이탈한 경로가 된다. 그러나 애착초기의 안정 애착획득과 제2의 애착인물에 의한 후원은 복원력(resilience)을 갖게 되어 청소년 후기까지도 새로운 경로선택을 가능하게 한다(Marrone, 2007 : 49-50). 따라서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내재된 표상이 된 내적 작동모델은 이후의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고, 성인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애착의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한다. 또한 타인대상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은 특별한 대상표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영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3. 성인 애착

보울비(2009 : 207-8)는 성인기의 애착행동이 아동기의 애착행동과 연결선상에 있으며 이것은 성인의 애착행동을 보다 즉각적으로 발현시키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고 하였다. 성인들도 불행이나 고통스런 일을 겪을 때, 또는 갑작스런 위협이나 재난이 닥칠 때, 본능적으로 평소 관계가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 한다. 켄니(Kenny, 1987 : 17-29)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6개월간의 단기 종단연구에 의하면 이들도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수위도 6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의 이성애에 대한 애착이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켄니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애착행동은 가족 외의 사람들이나 집단, 혹은 단체에게도 나타나며 노년기에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세대의 구성원을 애착대상으로 삼기도 한다(Bowlby, 2009 : 312-17).

하잔과 셰버(Hazan & Shaver)는 성인의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의 유지, 결별 그리고 재회 과정 중에 보이는 강한 정서

가 아동기 애착상실과 분리 개념과 일치함을 주장하며 성인의 낭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 애착을 개념화 하였다(이희숙, 2008 : 16-18. 재인용). 또한 성인 애착유형의 분류를 위해 과거의 애착사를 탐색하고 그 기억에 대한 현재의 생각을 묻는 성인 애착면접법(Adult Attachment Interview : AAI)이 메인과 골드윈(Main & Goldwyn, 1985)의 의해 개발되면서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자기모델	
		긍정	부정
타인모델	긍정	안정유형(secure) 친밀감과 자율성을 편하게 수용	집착유형(preoccupied) 관계에 집착함
	부정	무시유형(dismissing) 친밀감 무시, 의존 거부	두려움유형(fearful)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사회적으로 회피

〈그림 1〉 K. Bartholomew와 L. M. Horowitz의 4범주 모델

성인 애착면접법을 실시한 초기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유형을 안정형, 무시(배척)형, 집착형의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Hazan & Shaver, 1987 : 511-524). 그 후 바돌로매와 홀위츠(Bartholomew & Horowitz, 1991 : 226-44)에 의해 성인 애착유형을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자기에게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자기모형(model of self)과 타인이 자기에게 사랑과 보호를 제공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타인모형(model of other)의 두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모형을 가지고 안전(secure)형, 집착(preoccupied)형, 무시(dismissing)형 및 두려움(fearful)형의 네 범주의 애착유형을 개념화했다. 자기와 타인모형에 의해 분류된 안전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애착모형을, 집착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모형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애착모형을 갖는다. 거부형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형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형을,

그리고 두려움형은 자기 및 타인 둘 다에 대한 부정적 애착모형을 갖는 것으로 가정되었다(정옥분 외 2009 : 180).

면접과정에서 안정형으로 분류된 성인들은, 애착의 과거사를 쉽게 기억해내고 쉽게 탐색한다.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억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어려운 역경이 닥쳐왔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심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무시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은 하지만 감정이 삭제되어 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으로 말한다. 지속적인 무관심, 정서적 거리감, 거절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배척이나 양가감정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집착형은 무시형과는 정반대로 애착시스템이 강력하게 활성화 되어있다. 관계를 너무 쉽게 맺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불안한 관계 혹은 양가적인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두려움 형은 상실, 학대 혹은 다른 외상경험의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선명하지만 쓸데없는 것이 많고 자신에 대한 분석도 신빙성이 없다. 부모에 대한 강력한 집착으로 부모에 대한 반항과 의존 사이에서 갈등한다(Marrone, 2007 : 124-28). 이와 같이 아동기의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성인 애착유형의 기초가 되었다.

4. 성인 애착유형과 아동기 애착유형의 비교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과 성인 애착면접법은 부모가 된 성인들이 자녀와 맺을 애착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Marrone, 2007 : 130). 이 두 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한 성인 애착유형과 아동기 애착유형과의 단기 및 장기적인 비교 연구는 어머니의 애착상태가 아동의 애착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enoit & Parker, 1994 : 1444-56 ; Steele, Steele & Fonagy, 1996 : 541-55 ; van IJzendoorn, 1995 : 387-403).

포나기와 그 동료들(Fonagy et al., 1991 : 891-905)은 임신 중인 예비부모에

게 성인 애착척도인 성인 애착면접법을 시행하고 그 후 자녀가 한 살이 되었을 때 낯선 상황 하에서의 애착수준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 유형이 70% 일치하였다. 아버지의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형 아버지의 82%는 안정적인 자녀를 둔 반면, 불안정형 아버지의 50%는 안정적인 자녀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세대에 걸친 불안정 애착의 전이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밀톤(Hamilton, 2000 : 690-94)은 가족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가족생활 양식 프로젝트(Family Lifestyle Project : FLS)를 통해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가정환경의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조사한 그의 연구결과 역시 부모에 의해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워터스와 그의 동료들(Waters et al., 2000 : 684-89)의 20년간 장기 종단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모든 연구가 애착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웨인필드와 동료들(Weinfield et al., 2000 : 695-702)은 20세의 어린나이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애착경험에 부정적 사건들이 많은 어머니와 18개월 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후 자녀가 19세가 될 때 성인 애착면접법을 통해 애착을 측정한 결과, 약 50% 만 애착유형의 일치를 보였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아동기애착유형의 지속성에 성장환경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동기의 애착경험은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에 따라 이후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메인과 골드윈(1984 : 203-17)의 주장을 증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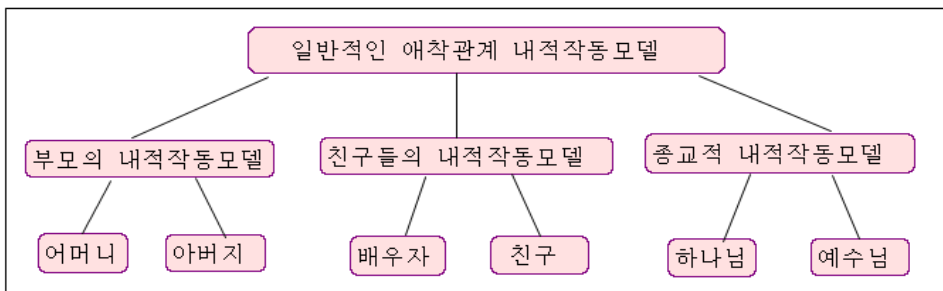
초기의 경험과 이후의 발달 사이에는 수많은 관계경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라도, 아동의 환경변화로 인해 획득한 성공경험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안전애착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와의 부정적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유형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앙적 경험은 긍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Ⅲ. 커크패트릭의 두 가지 가설

1. 일치가설(Correspondence hypothesis)

일치가설은 아동의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 성인의 낭만적인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리적인 애착인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가정을 시작으로 설명한다. 즉,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자신의 인간관계 대상처럼 함께해주고 반응해주며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애착인물로 기대한다. 반면에 회피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계시고 접근 불가능한, 또는 차갑고 거부하는, 아니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지각한다.

콜린스와 리더(Collins & Read, 1994 : 53-90)의 연구에 의하면, 애착주체의 내적 작동모델은 계층적인 방법으로 형성되며, 애착초기의 애착모델은 시간적 단계로 맺게 될 애착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 애착경험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모든 애착대상과 상호관련을 가지게 된다. 특히, 성인의 낭만적 애착대상의 내적 작동모델과 하나님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도 동일한 내적 작동모델이 작동함을 의미한다. 성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은 아동기의 이전의 애착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애착유형의 개인적인 차이는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과 타인의 내적 작동모델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아동기 애착경험의 개인적 차이가 성인의 종교적인 믿음의 차이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내적 작동모델의 계층적 모델들. 참고자료 Collins & Read (1994).

성인 애착의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들은 인간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의 일치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의 시작은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커크패트릭(1992 : 266-75)의 첫 번째 연구에서도, 부모와 관계에서 자신을 안전애착으로 분류한 사람들은 회피애착으로 분류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덜 통제하며, 접근가능한 분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자아와 타인 내적 작동모델은 초기에는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 애착인물을 사랑이 많고 돌보는 존재로 인식하면 자신도 사랑과 돌봄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본다. 이것은 1,300명의 심리학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커크패트릭(1998 : 961-73)의 종교적인 믿음과 성인 애착유형 사이의 관계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자아와 타인 모두에 대한 긍정적인 작동모델은 긍정적인 하나님이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자애로우신 분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존감과 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자아의 내적 작동모델과 애착인물로서의 하나님의 내적 작동모델 사이의 일치를 반영해주고 있다.

커크패트릭과 셰버(Kirkpatrick & Shaver, 1990 : 315-34)에 의해 이루어진 종단적 연구에서는 아동기 애착유형과 성인종교 변수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아동기 동안에 어머니가 비교적 종교적이었을 경우에 일치가 관찰되었다. 안정적 어머니 애착을 가진 응답자는, 불안정 어머니 애착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서 종교적인 헌신과 교회출석의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안정적 어머니애착을 가진 응답자들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많았다. 반면에, 자신의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비종교적이었다고 말하는 응답자들에게는 반대로 적용되었다.

그란퀴비스트(Granqvist, 1998 : 350-67)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애착모델과 성인기의 종교성과의 연관성은 오직 종교적인 부모를 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해 그는 일치가설에 대한 새로운 설명으로 ‘사회화된 일치(Socialized Correspondence)’를 주장하며 연구를 위해 ‘사회화기반 종교성척도

(Socialization-Based Religiosity Scale : SBRS)’를 개발하였다(Granqvist & Hagekull, 1999 : 254-73). 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사회화기반 종교성척도 점수와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화된 일치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Granqvist, 2002 : 260-70). 게다가,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응답자에 의해 회고적으로 기술된 종교적 변화는 일찍 시작되거나 점진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중요한 타인의 믿음을 채택하는 종교성의 일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동이 점차적으로 부모의 종교성을 닮아가는 전통적인 방법이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성인의 종교성으로 나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애착유형은 일치가설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과 애착인물의 내적 작동모델은 서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의 종교적 신념은 아동기 애착경험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 아동기를 보낸 사람이 부모의 종교적 믿음을 채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애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들의 종교적 믿음과 그들의 부모의 종교적 믿음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느리고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2. 보상가설

부모에게 안전애착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자녀들은, 가족이나 애착욕구에 강하게 반응하는 타인과 같은 애착대체인물을 찾는다(Ainsworth, 1985 : 792-812). 뿐만 아니라 영아기의 안전애착이 부모의 죽음이나 질병, 이혼과 같은 중요한 사건으로 불안정 애착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애착대체인물이 확립되면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NICHHD, 1997 : 860-79).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이 출현되었다.

커크페트릭과 그란퀴비스트는 성인 애착척도로 분류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의 경우, 결핍된 애착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운다는 보상가설을 주장하고

그 증거들을 위해 아동기 애착경험과 그 후에 발달시킨 종교적인 믿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청소년기나 성인기 동안에 ‘갑작스런 종교적 회심(sudden religious conversion)’에 대한 경험여부를 묻는 종교성척도 질문지에서 나타난 결과는 보상가설의 발판이 되었다(Kirkpatrick & Shaver, 1990 : 315-34). 그것은 불안정 부모 애착을 가진 사람의 회심의 비율이 안정 부모 애착을 가진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피형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44%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한다. 계속적인 그의 연구에서도 갑작스런 종교적 회심의 비율은 안정 어머니 애착에 비해서 불안정한 어머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Kirkpatrick, 1992 : 3-28). 이것은 <그림 3>과 같이 부모의 믿음과 일치하는 종교적인 믿음을 성인기에 갖게 된다는 일치가설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종교적인 부모	비종교적인 부모
안정 부모 애착	더 종교적	덜 종교적
불안정 부모 애착	덜 종교적	더 종교적

〈그림 3〉 부모의 종교성과 아동기의 애착안정이 성인의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

(Kirkpatrick의 Attachment, Evolution &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05)

그란퀴비스트도 불안정 어머니 애착을 가진 사람이 성인기에 중요한 변화를 더 많이 겪는다는 커크패트릭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가 하체 쿨과 더불어 두 번째로 개발한 ‘감정기반 종교성척도(Emotion Based Religiosity Scale : EBRS)’는 특별히 종교적 믿음의 기저에 깔린 애착관련 동기, 즉 분리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인식처와 안전기지 기능과 같은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Granqvist & Hagekull, 1999 : 254-73). 사회화기반 종교성척도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감정기반 종교성척도(EBRS)’는 아동기의 부모 애착관계의 불안정성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곱 개의 연구를 서로 비교하여 분석한 커크패트릭(2005 : 101-109)의 연구결과는 갑자기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비회심자들 보다는 반대로 감정기반 종교성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아동기 부모 애착은 사회화 기반 종교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일치모델과 일치하는 반면에, 불안정 애착은 감정기반 종교성과 관련이 있는, 보상모델과 일치했다. 또한 안정적 아동기 애착을 가진 성인의 종교심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부모의 믿음을 채택하는 일치가설을 지지하였다. 반대로 불안정한 아동기 애착을 가진 사람의 종교심의 변화는 초기에 시작되기 보다는 나중에, 점차적이기 보다는 갑자기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보상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커트페트릭(1998 : 961-73)은 불안정 애착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믿는데 있다는 것이다. 사랑받는데 조건이 필요치 않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지적한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더 멀리 계신 분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이 애착인물을 믿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대상으로 확고히 인지되었다면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기불안이 없어짐으로 인해 개인은 애착인물과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안정적 애착관계를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감정적 경험이 종교적인 경험 또는 회심으로 나타난다.

커트페트릭(1997 : 207-17)의 4년간의 종단연구에 나타난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았다고 가장 많이 보고되었던 불안형 집단이 그 후 4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보고 또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변화는 불안형 성인이 대체 애착인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결핍된 애착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2005 : 101-9).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보상가설 지지연구로는 그란퀴비스트와 하제쿨(2003 :

793-817)의 종단적인 연구형태로 관계상의 상태(status)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들은 196명의 이성교제 중인 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15개월 후에 이전의 헌신적인 낭만적 관계가 분리되거나 깨어짐을 경험한 22명의 새로운 싱글(single)을 분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새로운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한 28명의 새로운 연인들도 분류했다. 그 결과 불안정형의 사람은 낭만적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는 것에 반응하여 종교성향이 증가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낭만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낮은 종교성을 보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인의 낭만적 관계를 연결시킨 이 연구는 성인의 애착파트너로부터 결핍된 욕구를 하나님과의 애착으로 보상한다는 커크패트릭의 보상가설을 지지하였다. 불안정한 애착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의 낭만적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종교적 회심이 빠르게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상과정은 종교 발달에서 애착의 역동적인 역할이 종교적 회심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애착에 대한 일치와 보상가설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차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3. 커크패트릭의 가설에 대한 신학적 조명

1990년대부터 커크패트릭과 그의 동료들(1992 : 3-28)에 의해,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애착표상이며 위기나 불안상황에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신자의 행동을 애착행동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으로 정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내재된 경험의 무의식적인 활동으로만 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내재된 인간의 표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애착’이란 용어의 의미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실제적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애착’에 대해 새로운 경험적 언어의 개발 작업을 브레텔톤(Bretherton, 1992 : 759-75)이 강조한 것처럼, 내재된 표상으로서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행동을 정의할 수 있는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 커크패트릭의 하나님 애착이론에 대해 신학적 기반의 부족을 확고하게 주장한 마이너(Miner, 2007 : 112-22)는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주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님 애착이론은 인지사회모델을 환원주의로 바꾼 것이다. 둘째, 하나님 애착모델은 개인이 애착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주관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애착이론의 부족한 신학적 기반을 건튼(Gunton)의 삼위일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불안정 애착형의 신앙집단이 회심을 경험하였으나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사례에 대해 커크패트릭이 추측한 것과 유사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초기 애착경험들로부터 획득된 무의식의 본보기들을 경유하여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최적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가장 핵심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하나님 애착이론이 하나님 속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온전한 의존이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애착관계로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 이상적인 부모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애착표상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편안한 안식처와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애착기능을 하고 개인은 하나님에 대해 근접성, 편안한 안식처, 안전기지를 추구하고 분리불안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애착특성 행동을 보여준다. 커크패트릭(1992 : 3-28)은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종교적인 행동의 예로서 확신과 안정의 욕구를 나타내는 간청기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하기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더 애정적이고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언 등을 인용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애착행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신앙적 행동들과 애착행동을 동일한 신학적 관점으로 언급하는 것에

주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애착이론의 신학적 접근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이론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어진 도구들에 대한 것이다. 커크패트릭의 하나님 애착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는 새로운 하나님 애착도구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최근에 맥도날드와 벡(Mcdonald & Beck, 2004 : 92-103)에 의해 개발된 하나님 애착검사지(Attachment to God Inventory : AGI)는 하나님 애착의 일치와 보상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맥도날드와 벡에 앞서 일치와 보상가설을 발표하는데 사용되어진 로왓트와 커크패트릭(Rowatt & Kirkpatrick, 2002 : 637-51)에 의해 개발된 하나님 애착척도(Attachment to God Scale : AGS)가 있다. 이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최해림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한국판 신(神) 애착질문지를 개발하였다(최해림, 2005). 그러나 최해림이 ‘하나님 애착’ 대신 ‘신 애착’으로 번안한 한국판 신 애착척도의 타당화 연구는 로왓트와 커크패트릭의 연구와는 그 대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로왓트와 커크패트릭의 연구대상은 기독교문화권에서 기독교인을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판 신 애착질문지는 불교와 무신론자를 포함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이다. 이처럼 커크패트릭의 가설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들 중에는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애착대상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를 기초한 연구인 하나님 애착에 대한 설명이 모든 유일신 종교에 걸쳐 적용되었고 하나님을 비인격 존재로 보는 종교에까지 확장되었다. 이것은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며 신중한 신학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Miner, 2007 : 112-22). 뿐만 아니라 다신교를 신봉하는 인도의 힌두교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나님(God)은 개인이 외적세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하나님 애착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기도 하였다(Kumari & Pirta, 2009 : 119-24). 이와 같이 커크패트릭의 성인 애착과 하나님 애착관계에 대한 일치와 보상가설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은 확고한 신학적 기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새로운 애착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IV. 하나님 애착과 기독교상담

1. 하나님 애착

애착행동의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은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 지속성, 애착인물로부터 분리불안,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때 안전한 안식처로서 애착인물에 대한 접근 및 애착인물을 안전기지로 하고 외부 환경을 탐색한다(Tancredy & Fraley, 2006 : 78-93). 이와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된 애착특성은 성인 애착관계와 청년기의 낭만적(romantic) 관계를 일반화하는 데까지 발전했다(Simpson et al., 2007 : 466-77). 게다가 커크패트릭(1992 : 3-28)은 영아와 어머니관계에서 지속된 성인의 낭만적 관계와 사랑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감정적 유대경험을 일치시켜 ‘하나님 애착’으로 정의했다. 커크패트릭(1992 : 3-28)은 애착의 초기유형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 짓는 보상과 일치의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보상가설은 아동의 성장과정 중에 부모 또는 주 양육자로부터 획득된 애착의 좌절 및 결핍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종교성은 부모관계와는 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치가설(correspondent hypothesis)은 초기 애착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동일하게 작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모델을 두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 애착이 덜 좌절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애착의 내적작동모델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 사이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가설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Kirkpatrick, 2005).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학적으로 하나님 애착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 지각된 표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보울비의 애착이론 속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크패트릭은 애착이론이 기독교인의 지각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신앙과 종교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인 애착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애착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였다(최해림, 2006 : 1-16). 예를 들어, 기도행동은 하나님과의 근접을 유지하려는 행동 중 하나이고, 병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또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안전한 안식처로 존재하신다. 안전기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각은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이 인지된 삶은 담대하고 진취적일 수 있다.

보울비(2009 : 341)는 초기 애착이론을 더 확장하여 영아와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행동체계를 호르몬 수준과 같은 신체 변인과 환경요인을 포함하였다. 행동체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애착행동이 생존을 위해 세대를 거쳐 유전된 것으로 정의하는 진화론적 관점이다. 그러나 로버츠(Roberts, 2002 : 174-99)는 아동이 부모와의 분리로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추구와 생존을 위한 보호의 존재로서가 아닌 양육자 즉 어머니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애착은 안전한 안식처로서의 편안함보다는 사랑의 성격이 더 많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독교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애착행동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애착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애착의 질에 대한 책임이 애착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착주체에게 부과하게 된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일관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별하여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지각하는, 곧 하나님을 표상화하여 회피하거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지한다.

2. 성경에 나타난 애착행동

성경에는 보울비가 말하고 있는 그 범위나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착”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학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다(Roberts, 2002 : 174-99). 셀(Sall,

2000 : 175)은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와 여부라고 지적했다. 성경에서 애착의 개념적 특성을 찾는 것은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를 위한 작업 중 하나이며 나아가 기독교상담에 애착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보울비(1980 : 174-75)의 애착개념에 나타난 애착대상은 인간이었다. 그는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애착의 결핍이나 좌절로 인해 애착을 대체하는 한정된 경우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애착대상은 좀 더 포괄적이다. 성경에서는 개인이나 타인들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또는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심리학적 관계를 애착개념으로 본다(Roberts, 2002 : 174). 인간의 애착행동은 애착대상에게 근접성을 추구하나 실현되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고 애착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분노한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애착 또한 같은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또는 그 존재성에 대한 의심은 불안이나 좌절감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사랑과 위로를 체험한다.

성경적 관점은 애착성향을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약한 자를 살피고 그의 힘든 부분을 담당하며 그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기독교인의 본성이기 때문이다(로마서 15 :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이다(전요섭, 박기영, 2008 : 105-6). 하지만 부자청년은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애착대상의 우선순위인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 곧 영생에 대한 해답을 뒤로하고 재물에 대한 강한 애착을 우선하였다(마태복음 19 : 16-22, 마가복음 10 : 17-22, 누가복음 18 : 18-23). 그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애착대상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인 의존성으로 애착대상과의 분리는 곧 강력한 불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공동체의 삶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다(로마서 12 : 15). 이는 상호애착으로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는 마음의 교통을 의미한다. 보울비(1980 : 442)는 “한 인간의 일생에 걸쳐서 중요한 축은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친밀한 애착관계

이며 이것은 자신의 삶의 힘과 기쁨을 끌어내고 타인에게 에너지와 즐거움을 준다”고 하였다. 타인과 친밀한 애착관계로 함께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애착을 강조한 것이다.

애착대상에 대한 강한 유대감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둘째아들은 어려운 형편이 되자 아버지의 품을 다시 찾는다(누가복음 15 : 11-32).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아들은 삶의 위협 속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기지이며 또한 안전한 안식처로서 애착대상이었다.

사도 바울의 예수를 향한 강력한 믿음에서도 애착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수에 대한 바울의 애착은,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근접성추구와 안전기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함으로 인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며,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 그는 예수에 대한 강한 신뢰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들을 오히려 기뻐했다(고린도후서 12 : 8-10).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부모 애착의 공통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것이다(마가복음 14 : 36, 로마서 8 : 15-16).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 된 인간을 돌봄으로 인간은 하나님아버지께 애착을 갖게 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마태복음 6 : 21) 결국 애착대상에 따라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애착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애착모델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애착’이다(마태복음 6 : 33). 부모나 자녀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마태복음 10 : 37-38). 하지만 하나님은 성숙한 인격을 위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애착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나 자녀, 부모 또는 이웃에 대한 애착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보울비는 돌봄과 보호와 지지의 관계를 위해 강력한 애착대상인 하나님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커크패트릭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는 하나님은 내적 작동 모델이 만든 애착표상(representation)과 일치하고, 양육자와의 부족한 애착결핍은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보상받으려 한다는 보상가설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커크패트릭의 가설과 기독교상담과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착된 사고와 왜곡된 인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애착이론과 기독교상담

클라인벨(Clinebell, 1984 : 25-26)에 의하면 기독교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제각기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성장 지향적으로 대처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치유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독교인의 진정한 역할을 강조한 크랩(Crabb, 1977 : 22-24)은 내담자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하나님의 뜻에 점차적인 순종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을 기독교상담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족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성경적 상담은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계몽과 권고와 격려를 강조했다. 하지만 인간의 죄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에 근거한 상담을 강조한 아담스(Adams, 1970 : 20-56)는 내담자의 문제는 죄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담자를 권면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을 기독교상담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독교상담에 대한 정의의 초점이 다른 것처럼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의 인간관 또한 상담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콜린스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택적, 통제적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상호관계로 설명하였다(전요섭, 박기영, 2008 : 105-106).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관계의 가장 중심이며,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분리되어 취급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은 인간의 상호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커크패트릭의 하나님 애착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면서 영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몇몇 논문에서 슬라이마허(Schleiermacher)와 카우프만(Kaufman)의 이론을 제시하며 자신의 연구에 약간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커크패트릭은 “종교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은 극도로 초월적인 존재이므로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인간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투사한다”고 보았다(Miner, 2007 : 112-22).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단지 생존을 위한 안전에 대한 욕구라면, 애착형상인 하나님은 오직 보호자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인간상호 관계에서 찾다면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근접을 위한 시도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고,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안전한 기지가 되며,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하나님 애착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성인 애착유형을 분류한 연구들에 의해 확장된 애착이론은 상담과 치료분야에서 상담과정의 이해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연결되었다. 국내에서도 성인 애착과 관련한 상담관계 혹은 상담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상담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성인 애착개념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애착이론이 상담과정에 유용한 개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문형춘, 2007 : 3-4). 특히, 성인 애착유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특성으로 적용될 수 있다. 몰린크로트와 그의 동료들(Mallinckrodt et al., 1995 : 307-17)의 연구에서도 친밀한 성인관계와 유아의 애착특성에서 유사한 점들이 나타났으며 안정 애착특성을 가진 내담자는 불안정 애착특성을 가진 내담자보다 대인관계에서 좀 더 자신감이 있고 타인을 신뢰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애착특성은 타인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결정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안내지도가 되므로

애착유형은 내담자의 치료과정에 대한 지각과 각각의 치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준다(Shorey & Snyder, 2006 : 1-20).

슬레이드(Slade, 1999 : 575-94)는 불안정 애착의 역사를 가진 내담자들의 경우 자신의 애착유형을 상담자에게 투사하여 상담과정을 왜곡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상담자의 수용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안전을 침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슬레이드는 애착유형에 따른 내담자 반응을 분류하였다. 먼저, 거부형 애착특성을 가진 내담자의 경우, 종종 침착하고 냉담해 보이나, 감정 또는 관계의 중요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상담과정을 도전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지각하여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집착형 내담자들은 우선 상담 과정에서의 제한과 한계를 지키기 어려워하고, 자신을 매우 불쌍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며, 상담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도 유영란과 이지연이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더 과장해서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유영란, 이지연, 2000 : 441-60).

애착이론을 적용한 상담은 자신과 애착대상 간의 관계에 대해 부적절하게 설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는 상담자에게도 부적절한 내적 작동모델에 근거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므로, 상담자의 과제는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정옥분 외, 2009 : 93). 내담자들은 나름의 어려웠던 관계의 애착역사에 의해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 그들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된 애착특성을 재 경험할 것이고, 오래된 불만족스러운 관계의 일부를 재현하게 된다. 그러나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감적이고 정서적인 애착인물로 인지된 안정적 애착관계는 내담자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경험으로 유도한다(지승희, 2000 : 15). 기독교 상담에서도 상담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 우선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상담효과를 검증하는 상담현장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담기술보다 상담관계가 상담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라고 한다(McMinn, 2001 : 13).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의 개인적인 인격과 영성은 내담자와의 안정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상담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합리적으로 보아야 한다. 내담자의 문제와 위기와 장애를 진단할 때는 과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볼 때에는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전요섭 외, 2004 : 65). 나아가 영적 지도자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주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Barry & Connolly, 2003 : 161).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관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면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이 개선된다(Reinert, 2005 : 226-36). 상처받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담자를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TenElshof & Furrow, 2000 : 99-108). 기독교상담은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강조한다. 바클레이(Bulkley, 2006 : 277-84)는 각 인격이 동등하지만 구별된 기능의 특성을 지닌 삼위일체적 상담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설명하였다. 삼위일체적 상담은 전능한 존재로 인간이 겪는 모든 심리적 문제들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성부의 역할과, 궁극적인 상담가로서 자신을 모델로 그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성자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데 가장 실제적인 역할로 먼저, 변화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기독교상담은 일반 상담과 다른 특별한 목적, 즉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인도하는 영적 성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Collins, 1982 : 325).

애착이론을 적용한 상담에는 애착의 핵심 상태(core state with respect to attachment)개념과 내러티브(narrative)기능이 있다. 애착에 대한 핵심 상태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인 개인의 애착상태이며 상담초기에 내담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애착의 내러

티브 기능은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함으로 과거의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단편적인 경험들을 통합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자신의 삶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므로 안전감을 형성한다. 또한 내러티브를 통한 내담자의 삶에 대한 재구성 과정은 효과적인 상담결과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olmes, 2008 : 230-51).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재된 애착표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다. 내러티브를 통한 하나님표상의 재구성 과정은 내담자의 왜곡된 하나님을 바로잡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전요섭은 왜곡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시각으로 전환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힘든 과정이지만 상담자의 노력을 촉구하였다(전요섭, 2007 : 48-51). 웬블리(Wimberly, 2005 : 27)는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담초기에 이미 시작되며 내담자의 하나님표상을 탐색하는 것은 재구성을 위한 결정적인 작업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재구성 과정 중에 성경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재구성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문제 중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애착진단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재구성 과정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성숙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에 애착이론을 적용 시 다음과 같은 틀을 가진 상담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접근을 통해 안정 애착관계를 맺는다. 둘째, 불안정 애착역사에 의해 고착된 대인관계 문제를 진단한다. 셋째, 내담자의 하나님 애착에 대한 탐색과 분석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애착모델을 재구성한다. 넷째, 하나님과의 새로운 애착관계를 경험하도록 인도한다. 이와 같이 애착이론을 적용한 기독교상담 과정은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고, 표면화된 문제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V. 결론

바울이 믿음의 아들의 디모데에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디모데후서 1:5)”라고 한 것처럼 개인의 종교성을 가장 잘 예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종교성이다. 이처럼 적절한 종교적인 환경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표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확실한 표준을 세우며, 사랑으로 돌보되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받는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처럼 모범적인 부모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맥도날드와 동료들(2005: 21-8)의 연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한 영적인 부모의 자녀조차 하나님을 회피하는 유기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졌다. 이것은 기독교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 예일대 연구진에 의해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연구발표는 신앙교육을 비롯한 인성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조선일보, 2010/5/11). 이것은 또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완전하지 못한 부모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무의식 과정 중에 대체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완전한 의존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성숙한 인격을 위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애착형상이다. 하지만 커크페트릭은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유형과 성인의 낭만적 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치시켰고, 인간 간의 애착결핍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감으로 보상받으려 한다고 하였다. 기독교상담적 입장은 내담자의 하나님 애착이 인간에 대한 애착결핍을 대체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담자의 왜곡된 하나님 애착모델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형상은 내담자가 인지한 하나님을 아는 데 중요한 근원이 된다. 부모와

의 관계가 불안정 애착으로 고착되면 동일한 내적 작동모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안정 애착관계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왜곡되지 않은, 확실한 하나님 개념으로 내담자의 인식을 재구성하는 기독교상담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애착성향이 단순한 발달단계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은 기독교와 보울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룬다. 이것은 아동이 자신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자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것처럼 초기의 바람직한 애착형성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예비하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 형상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외부의 입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공동체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교회공동체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관계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Crabb & Allender, 1999 : 239). 또한 교회 내에는 사랑과 위로를 공급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동뿐 아니라, 불안정 애착모델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공동체 구성원인 내담자를 더욱 효과적인 상담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커크패트릭의 가설을 근거로 한 애착이론을 기독교상담적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애착에 대한 국내연구가 미흡하고, 게다가 하나님 애착이론을 적용한 기독교상담 방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독교상담에서 기독교인의 진정한 하나님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님 애착도구의 구체적인 활용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문형춘 (2007). “내담자 성인 애착특성에 따른 내담자 및 상담자의 내현적 대인반응과 회기 성과.” 박사학위논문 : 가톨릭대학교대학원.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60.
- 유영미 (2004).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대학원.
- 이희숙 (2008). “성인 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 전요섭 외 11인 (2004).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 (2007).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 도서출판 좋은나무.
- , 박기영 (2008). 『기독교상담학자』, 서울 : 쿤란출판사.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2009). 『애착과 발달』, 서울 : 학지사.
- 조선일보 2010. 5. 11. 사회면.
- 지승희, (2000).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최해림 (2005). “한국판 신 애착질문지 타당화,” 서강대학교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제26집.
- (2006). “부모 애착, 자기애, 신 애착의 관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제 27집.
- Adams, Jay E. (1970). *Competent to Counseling*. Grand Rapids : Zondervan.
- Anisworth, Mary. S., Blehar, Mary C., Waters, Everett. & Wall, Sally.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J : Lawrence Erlbaum.
- (1985) “Attachments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9). 792-812.
- Barry William A. & Connolly, William J. (2003).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김창재, 김선숙 역, 『영적 지도의 실제』, 서울 : 분도출판사.
- Bartholomew, Kim & Horowitz, Leonard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44.
- Benoit, D.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56.
- Bretherton, Inge.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5.

- Bowlby, John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73.
- _____ (1976).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NY : Basic Book.
- _____ (1980). *Loss : Sadness and Depression*. NY : Basic Book.
- _____ (2009). *Attachment*, 김창대 역, 『애착』, 서울 : 나남출판사.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1998).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Y : Guilford.
- Brisch, Karl H. (2003). *Treating Attachment Disorders*, 장휘숙 역, 『애착장애의 치료』, 서울 : 시그마프레스.
- Bulkley, Ed. (2006). *Why Christian Can't Trust Psychology*, 차명호 역, 『왜 크리스천은 심리학을 신뢰할 수 없는가』, 서울 : 미션월드.
- Clinebell, Howard. (1984).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 Abingdon.
- Collins, Gary R. (ed.). (1982). *Helping People Grow : Practical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ing*. Ventura : Vision House.
- Collins, Nancy L. & Read, Stephen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3.
- _____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and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London : Kingsley.
- Crabb, Lawrence J.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 Zondervan.
- Crabb, Lawrence J. & Allender, Dan. (1999). *Hope When You're Hurting*, 정동섭 역, 『상담과 치유공동체』 서울 : 요단.
- Fonagy, P. Steele, Howard G. & Steele, Miria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Infant-Mother Attachment Patterns at One Year."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ranqvist, Pehr. (1998). "Religiousness and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 : On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or Correspondence."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350-67.
- _____ (2002). "Attachment and Religiosity in Adolescence : Cro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al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260-70.
- Granqvist, Pehr & Hagekull, Berit. (1999). "Religiousness and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 : Profiling Socialized Correspondence and Emotional

- Compens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8(2), 254-73.
- _____ (2003). “Longitudinal Predictions of Religious Change in Adolescence : Contributions from the Interaction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tatu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6), 793-817.
- Hamilton, Claire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3), 690-94.
- Hazan, Cindy & Shaver, Philli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24.
- Holmes, Jeremy. (2008).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 학지사.
- Kenny, Maureen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irkpatrick, Lee A. (1992). “An Attachment-Theory Approach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1), 3-28.
- _____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2), 207-17.
- _____ (1998). “God as a substitute attachment figure : A longitudinal study of adult attachment style and religious change in College stud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61-73.
- Kirkpatrick, Lee A. & Shaver, Phillip R. (1992).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romantic love and religious belie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266-75.
- _____ (1990). “Attachment Theory & Religion : Childhood Attachment, Religious Beliefs, and Convers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315-34.
- Kirkpatrick, Lee A. (2005). *Attachment, Evolution, and the Psychology of Religion*. NY : Guilford.
- Krause, Alison M. & Haverkamp, Beth E. (1996). “Attachment in Adult Child-Older Parent Relationships :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2), 83-92.
- Kumari, Anupam & Pirta, R. S. (2009). “Exploring Human Relationship with God as a Secure Base.”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5, 119-24.
- George, Carol. & Solomon, Julie.(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 The

- Caregiving Behavioral System. In Jude Cassidy & Philli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Y : Guilford.
- Main, Mary & Solomon, Julie. (1986). "Discovery of a New, Insecure-Disorganized/ 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In T. B. Brazelton & Yogman, M.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Norwood : Ablex.
- Main, Mary & Goldwyn, Ruth. (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s : A Preliminary Re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buse and Neglect, 8, 203-17.
- _____ (1994). "Interview-based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s : Related to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Attach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y.
- Mallinckrodt, Brent. Gantt, Diana L. & Coble, Helen M. (1995). "Attachment Pattern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 Development of the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307-17.
- Marrone, Mario. (2007). Attachment and Interaction, 이민희 역, 『에착이론과 심리치료』, 서울 : 시그마프레스.
- McMinn, Mark R. (2001).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채규만 역,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된 기독교상담』, 서울 : 두란노.
- McMinn, Mark R. & Timothy R. Phillips. (2006). Care for the Soul :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 Theology, 전요섭 외 공역,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 Miner, Maureen H. (2007). "Back to the Basics in Attachment to God : Revisiting Theory in Light of The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5, 112-22.
- Mcdonald, Angie. & Beck, Richard. (2004). "Attachment to God : The Attachment to God Inventory Tests of Working Model Correspondence, and An Exploration of Faith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2). 92-103.
- NICH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Mother-Infant Attachment Security : Result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79.
- Reinert, Duane F. (2005). "Spirituality, Self-representations, and Attachment to Parents : A Longitudinal Study of Roman Catholic Seminarians," Counseling and Values, 49, 226-36.
- Roberts, Robert C. (2002). "Attachment : Bowlby & the Bible." In Todd H. Speidell(Eds.), On Being a Person : A Multisciplinary Approach to Personality

- theories. Oregon : Cascade.
- Rowatt, Wadel C. & Kirkpatrick, Lee A. (2002). "Two Dimensions of Attachment to God and Their Relation to Affect, Religiosity, and Personality Construc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4), 637-51.
- Sall, Millard. (2000). *Faith, Psychology and Christian Maturity*, 김양순 역,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Slade, Arietta. (1999).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with Adults."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Y : Guilford.
- Shorey, Har S. & Snyder, C. R. (2006).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Style in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Outcom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0(1), 1-20.
- Simpson, Jeffry A. Winterheld, Heike A. Oriña, M. Minda. & Rholes, W. Steven. (2007). "Working Model of Attachment and Reactions to Different Forms of Caregiving from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466-77.
- Steele, H., Steele, M. & Fonagy, P. (1996).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Classifications of Mothers, Fathers, and Their Infants." *Child Development*, 67, 541-55.
- Tancredy, Carolin M. & Fraley, R. Chris. (2006). "The Nature of Adult Twin Relationships :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78-93
- TenElshof, Judith K. & Furrow, James L. (2000). "The Role of Secure Attachment in Predicting Spiritual Maturity of Students at a Conservative Seminar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99-108. VAN IJZENDOORN, M. H.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3), 387-403.
- Zimbardo, Philip G. Weber, Ann L. & Johnson, Robert L. (2003). *Psychology*. Boston : Allyn and Bacon.
- Waters, Everett. Merrick, Susan K. Treboux, Dominique. Crowell, Judith & Albersheim, Leah.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 684-89.
- Weinfield, Nancy S. Sroufe, L. Alan & Byron Egeland, "Attachment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in a high-risk sample :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their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1, (2000) : 695-702.

Wimberly, Edward P. (2005).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김진영 역, 『목회상담과 성경사용』,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ABSTRACT

Approach to Adult Attachment Behavior and Attachment to God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 Centering Around Kirkpatrick's Hypothesis -

Hang Sook Lee(Sungkyul University)

Joseph Jeon(Sungkyu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grouping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attachment theory, which is being discussed as the latest issue, based on two hypotheses by Kirkpatrick to Christian counseling. To achieve the object, the attachment theory by John Bowlby, the extended adult attachment behavior, and Kirkpatrick's hypothesis have been researched. By extending the explication by John Bowlby, who regarded human being's attachment behavior as survival instincts and explained weak person's relying on a strong one as the foundation for him to acquire the strength to live on, Kirkpatrick identified it with believer's attachment behavior to God. Through a lot of studies which proved the hypothesis identifying attachment to God with adult attachment and compensation hypothesis of making up deficient attachment desire from God, the uneasy attachment formed from the relationship at the initial stage between a believer and a fosterer resulted in becoming aware of God as a distorted image. In the terms of Christianity, the root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God is an instinctive behavior made by God's creation. The best refl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created as the God's image and God Himself is parental love for a child and child's entire dependance on his or her parents.

Therefore, in the Christian counseling of which the object is the growth of belief for Christian and the salvation of soul,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hat the attachment image to God distorted by wrong parental bringing up should be reconstructed with God's image that is a complete parental image. In addition, because the attachment at the initial stage can be motive power leading to sound life and the base in forming God's image, the early education of a faith in Christianity and a desirable parental role should be emphasized.

Key Words : attachment, adult attachment, correspondence hypothesis, compensation hypothesis, attachment to God, Christian counseling